

물의 얼굴, 자본화된 물과 생존 가치의 물 - 물과 생활 -



이 정 수 |
녹색미래 사무총장
omodumo@hanmail.net

1. 생활 속 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가 생존자원인 물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은 사회 발전 정도를 증명하는 상징적 시스템이다. 발전된 사회의 구성원은 도시 기반시설 상하수도관을 통해 정제된 수도물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물 이용료는 낭비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저렴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물과 같은 생존자원의 편리한 이용은 해당 사회의 부유함과 평등을 알려주는 바로미터처럼 여겨진다. 기간시설 정비를 통해 물을 쉽게 낭비하는 모습을 저개발 국가 지역이나 고산지대의 심각한 물 부족 지역 주민들이 본다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할지도 모른다. 자원을 버리고 낭비하는 행위는 부유함의 강한 과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을 마구 쓰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전 일에 지나지 않는다. 백여 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터에서 식수를 길어 사용했고 주거지에서 한참 떨어진 시냇가에서 빨래를 해 널어 말렸

다. 600여 년에 걸쳐 도시가 형성되었던 경성 역시 집안 마당에 우물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개화기 조선을 찾아온 서양 선교사의 회고록 등을 읽어 보면 경성 거리에 공공 상하수도 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가정집 부엌은 뒷간과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 음식물 조리, 보관의 위생 상태는 거의 최악이었다. 깨끗한 물이 없으니 세척도 어려워 생활 모든 면에서 세균 감염에 노출되어 있었다. 위생 개념이 미미해서 시가지 중심에는 도축장에서 가져온 가금류와 야채 등의 상품이 비위생적으로 판매되는 일도 빈번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온갖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도로에 뒤섞여 악취와 기생충 범벅이었다고 한다.

개화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새벽마다 지계를 지고 배달 오는 물장수를 맞이해야 비로소 솔에 물을 끓이고 아침준비를 하던 풍경은 일상이었다. 김동환의 시 “북청물장수”는 그리 오랜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물이 귀했기에 물을 신성하게 여긴 어머니들은 정한수를 떠 놓고 간절한 기원을 올렸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고지대 단수는 흔한 일이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물차에 줄을 서서 물을 배급받아 생활했던 기억이 새롭다.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 운동은 우물을 펌프로, 펌프를 수도로 바꾸어 갔고 이에 따라 불편하던 물 사용의 기억 역시 잊혀졌다. 물은 급속하게 흔하고 값싼 자원이 되어버렸다. 가끔씩 갈수기 농어촌 지역 식수문제를 뉴스에서

접해야 어렵듯이 떠오르는 정도일 것이다.

물은 우선 생존을 위해 일차적 자원이지만 사실 삶의 다른 측면에서 역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탄생과 소멸, 정화와 재생에 관여하는 물의 생명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원형상징으로 해석되는 문화적 공유 의미를 축적해 왔다. 인체의 55~60퍼센트 이상은 물로 채워져 있다. 약간만 탈수되어도 인간은 고통을 느끼고 죽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처럼 삶의 원동력이자 근원으로 작용하는 물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물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지구 전체의 물은 증가하는가 혹은 쓰는데로 감소하는가? 빗물이 내려 모인 물은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 집 주방과 욕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변기로 내린 물은 정화조에 머물다가 수거되는가 혹은 따로 여과시설을 거쳐 어디론가 가는가? 하수도로 흘러내린 물들은 어떻게 버려지는가? 눈과 몸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물의 오고 가는 경로가 참으로 생소하다.

생소한 물의 모습이 생활 속 물의 유통경로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물은 그 자체로도 인간 삶과 밀접하지만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의 생애 주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재 지구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2050년에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약 90억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2~4리터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 직접 마시는 양과 먹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합친 양만 그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물 없이 생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면화 재배에 들어가는 물, 제작 기계를 돌리는데 사용하는 물, 염색과 세척에 쓰는 물을 생각해 보라. 티셔츠를 버릴 때까지는 또 얼마나 여러 번 세탁할 것인가. 양모를 세척해서 모직물 옷을 만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 또한 쌀과 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소비되는지도 잘 모른다. 수원지에서 가정에도달하는 수도관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누수되고 있는지 역시도 잘 모르고 있다. 대신 사람들은 샤워할 때나 설거지할 때 물을 절약하는 것으로 물을 절약하려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생활용수보다 물 사용의 훨씬 어마어마한 비중은 위에서 지적한 간접 활동들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이 선택한 핵심 주제는 ‘물과 식량안보’이다. 이를 증명하듯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2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연설에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유한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말로 성장하는 세계인구의 식량과 영양을 보장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다행히 비교적 원활하게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수자원 고갈과 물 안보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도 마냥 수자원 공급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 문제는 점점 더 인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급박하게 대두될 것이다. 반 총장이 “물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 경고하는 까닭은 이때문이다.

물 문제는 지구에서 생명체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생산과 소비 전 사이클에 관여한다. 이 글에서는 마스크이나 공익 홍보를 통해 익숙한 캠페인성 수자원 절약의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대신 그간 간과하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생활 속 물의 사이클을 몇 가지 짚어보며 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2. 삶과 물에 관한 주요 문제들

1) 생활 자원 생산과 물

우리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력을 필요로 한다. 밥을 지어먹는 일부터 첨단 스마트기

기를 사용하는 일까지 에너지 투입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데 다양한 전환에너지들을 생산하는데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가정용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1인당 매일 9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동일시간 가정 내 주방과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의 2.5배에 달하는 양이다. 텔레비전, 컴퓨터 반도체 등 필수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서도 전기는 필수적이다. 청바지, 아이폰, 크리넥스, 쌀을 비롯해 현대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 2리터짜리 코카콜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5리터가 필요하다고 코카콜라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2020년까지 물 중립을 유지하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 하고 물 데이터를 수집, 분석, 공개하는 중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1리터의 음료수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먹는 양 1리터 외에 제조, 청소, 처리하는 과정까지 2.4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전 세계인이 즐겨 입는 리바이스 청바지 한 벌이 생산된 후 사라질 때까지 필요로 하는 물은 무려 3,492리터에 달한다. 제조에 필요한 면화 재배로부터 청바지의 수명을 불과 2년으로 잡았을 때 세탁에 필요한 양이다. 이처럼 공산품을 생산 사용하기 위해 소비되는 물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식생활을 위한 벼농사, 야채, 과일 생산과 세척, 과정에서 쓰이는 물의 양을 위의 절차에 대입해서 보면 일상이 돌아가기 위해 간접적으로 쓰이는 물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정에서는 물을 쓰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다. 가정용 정수기 배수관을 유심히 살펴보면 1리터 정수물을 위해 3~4배 되는 물을 그냥 흘려보낸다. 배수관은 싱크대 뒤로 숨겨져 있어 흘러보내는 물의 양을 미처 느끼지 못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뷔페식당에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얼음을 보자. 음식 신선도를 위해 매일 수 톤의 얼음을 만들어내려면 제빙기를 쉴 새 없이 가동해야 하고 얼음을 보충해야 한다. 얼음이 녹으면 물 처리 시스템으로 흘려보낸 다음 물을 정화해

서 배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물의 양을 지칭하는 단어 ‘물 발자국’ 개념은 사실 ‘탄소 발자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기름은 연소과정을 거쳐 전부 사라지지만 물은 변형될 뿐 전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와 달리 모든 물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러나 문제는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물이 다시 나타나는 장소, 되돌아오는 시기 등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변기와 샤워에 드는 물을 절약하고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죄책감은 덜하겠지만 그렇다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개발국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단순히 물 사용량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라고 고민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2) 식수 환경과 물값

당장이라도 마트에 가보면 각종 보틀링 워터가 종류별, 용량별로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식품코너에서는 워터 바(Water-bar)라는 이름 아래 세계 유명 생수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보틀링 워터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저렴한 생수를 사먹는 사람들로부터 몇 만원에 육박하는 생수를 취향대로 사먹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고가의 생수들은 해외 브랜드를 달고 미네랄 함량, 탄산 농도, 무공해 빙하 공수 등 각종 선전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공략한다. 카페나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 대신 음료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미네랄워터를 사 먹는 일은 흔한 일이다. 기껏 물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다는 느낌, 물맛을 구별하는 고급 취향, 세련된 생수병 디자인을 소비하는 느낌들이 더해져 생수시장은 점점 커져간다. 비례적으로 이제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수많은 가정, 대부분의 공공건물에는 생수통, 정수기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제 수돗물을 처리 없이 마시는 일은 커녕 끓여 마시는 일조차 꺼림칙하게 느끼

학술/기술기사

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치 오염된 물, 위험한 물처럼 피한다.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수돗물 브랜드인 '아리수'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우리는 언제부터 수돗물 음용을 불신하게 되었는가.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병에 담아 판매하는 일은 황당한 일이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빠지지 않는 화젯거리 중 하나는 먹는 물을 병에 담아 판다는 것, 그래서 구입 시 개스와 노 개스를 구분해서 잘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나 물을 끓여 마셨고 아무데서나 한 잔 청할 수 있는 물을 돈 받고 판다는 것은 붕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판 것처럼 약간 부도덕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나자 식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물은 마지막 남은 고부가 가치 생산 자원, 즉 '화이트 골드'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로 불린다. 식수를 가공 판매하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네슬레'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들은 너도 나도 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국적 기업은 생수 아닌 물이 음용하기에는 미심쩍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성공했다. 생수와 수돗물의 유통경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위생 때문에 물을 사먹기 시작했다. 비싼 물을 사먹는 사람이 부유하고 세련된 사람이라는 이미지 역시 만들어졌다. 물맛을 다양하게 차별화했으니 순수하고 건강에 좋은 물을 취향대로 구별해서 마시는 이미지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책정한 가격은 생산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 그리고 생수는 미묘한 방식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생수가 수돗물에 비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좋은 물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보틀링 워터들은 선전만큼 안전하지 않다. 굴착기로 뽑아낸 물이 정수장에서 수도관을 통과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위생적이라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생수구입과 정수기 설치에 드는 수많은

돈을 차라리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나 정수장 감시에 구조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도 생산과정에서 수돗물은 생수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받는다. 그렇지만 어차피 생수를 사 먹을 거라면 무엇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방안을 받아들이고 엄격한 검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는가?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건데 말이다. 식수에 대한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수정하고 감시하는 것은 늘 물을 먹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3) 물 분쟁 문제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오염된 물로 인해 죽어가는 어린이 숫자가 약 180만 명을 헤아린다. 이는 하루 5,000명의 어린이가 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상 70억 명의 인구 중에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는 인구는 최소 11억 명 이상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저개발 국가의 주민들은 오염되지 않은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가정이나 마당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인구도 약 18억 명에 달한다. 전 세계 40퍼센트의 인구는 물을 얻기 어렵거나 물을 얻기 위해 멀리 걸어야 한다. 사막 지역에서는 말라가는 수원으로 인해 긴 시간을 들여 무겁게 물을 길어오곤 한다. 물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신체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가 가장 먼저 물 부족으로 고통당할 것은 당연하다.

한편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은 오래 전부터 동일한 수원에서 발수하는 강을 여러 나라가 공유해 왔다. 국경선을 넘어 강이 흐르는 경우 하나의 강은 여러 지역 주민들의 젖줄이다. 그런데 수원을 독점해 하구 지역 주민들의 생존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빈번하게 일어난다. 물을 먹지 못하면 동식물도, 인간도 죽는다. 농장에 물을 대는 수권 분쟁이나 독점으로 인해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한다. 상류에서 오염시킨 물이 하

류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 역시 자주 일어난다. 거대한 댐을 만들어 하류의 물을 고갈시켜버리는 일은 국가나 부족 간 전쟁을 일으킨다.

물 관련 다국적 기업이 한 지역의 수자원 관리권을 독점해 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부패하거나 윤리가 부족한 정권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대신 수자원 독점권과 관리권을 자본에 팔아버린다. 이제까지 물을 공짜로 마시고 사용하던 주민들은 상하수도를 개량해 주었다는 빌미 하에 비싼 물 값을 지불하라고 강요당한다. 물은 가난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어떤 생명이라도 나눠받아야 하는 자원이다. 물을 마시는데 돈을 내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럼에도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에 의해 물의 권리는 독점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물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시민 사회의 양심에 호소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물은 순환자원이므로 수자원의 독점과 일방적 분배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는다. 물이나 산소처럼 들고 도는 자원 문제는 처음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지만 결국 전 세계 문제로 확산된다. 수권의 문제는 오염 발생 시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해당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지역적 물 분쟁과 독과점, 가격 문제를 이슈화하고 토론하며 정당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3. 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얼마 전 미래 사회의 삶을 가상해 만든 영화 한편을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시간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개인에게 속한 마지막 자원인 시간을 부자들에게 팔아 연명한다는 설정이 묘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어 끔찍했다. 아직까지 시

간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축적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시간이 개별 실존에 속한 마지막 자원이라는 생각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시간, 물, 빛, 공기 등은 생명체 지속에 필수 불가결하지만 재생산이 힘들다. 아직 자연에 속한 자원들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며 경이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 시간 축적과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 과연 부자들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타인의 시간을 사려 할 것이다. 과학 발달은 점차 자연 속에서 너지들마저 조작해 빈부 격차를 발생시켜 간다. 지금도 익숙한 공기청정 시스템, 산소를 집약해서 산업화한 물품, 조망권이 비싼 아파트……. 자연에너지들도 점점 자본주의 소비체계 안에서 차등화되고 있다. 물에게도 지난 몇십 년 간 끊임없이 차등가치를 매겨왔다. 조선만 해도 물은 양반으로부터 천민까지 양과 질에 있어 공평했다. 그로부터 백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물은 한 병에 몇 만 원짜리 고가 생수까지 팔리는 상품으로 변모했다. 다행히 물로 인한 생존 위협으로부터는 우리는 아직까지 자유롭다. 그러나 생존 자원인 물이 무기화된다고 가정해보면 정말이지 공포스럽다. 수원지 소유권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지역 분쟁, 오염된 물로 죽어가는 저개발 국가 어린이, 타들어가는 지구 곳곳의 물 부족 현상 등을 보면 우리가 과연 물 안보로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 물은 점점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다. 갈수기와 우수기의 격차가 심하고 저장 시스템이 불완전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님은 누차 경고된 바 있다. 나한테만 속한 시간을 팔아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경악스러운 설정이 물에 이르러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물과 관련된 삶의 사이클을 인식시킬 새로운 교육과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 부족 문제는 댐 건설이나 용수의 절약 등 지금까지의 방법으

학술/기술기사

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 탄생과 소멸이라는 순환구조에서 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절약이나 벌금 등 타율적 금제 등 부정적 해결방법에서 기꺼이 물을 보호하는 자율적 절제로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접근이 물의 평등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식, 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등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물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이자 생명체의 운명이다. ☞

● 참고문헌

1. 찰스 피시먼 지음, 김현정 · 이옥정 옮김/강희찬 해제, 『거대한 갈증』, 생각연구소, 2011.
2. 애니 레너드 지음, 김승진 옮김,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김영사, 2010.